

# 장흥군, '노벨문학도시' 탐방 프로그램 대폭 확대

문학 탐방객 전년비 4배 증가 전국 초·중·고교 대상 홍보 등 문학기행코스 조성·확대 운영 산책길·전시공간 등 인프라도

장흥군이 대한민국 유일의 문학관광기행특구 조성 노벨문학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문학 탐방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장흥 출신 소설가 한승원의 딸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장흥을 찾는 문학 탐방객이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장흥은 수많은 문학인을 배출한 지역으로, 문학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풍부한 문학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관광 산업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포부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지정, 최근에는 전국적인 문학 관광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추세다.

이에 장흥군은 노벨문학도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전국 초·중·고교 및 전남인재개발원에 문학탐방 안내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13일에는 전남인재개발원 교육생 19명이 장흥군의 대표 문학 명소와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벨문학도시장흥한달여행하기', '문학·교육단체 연계 문학 기행코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학 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한승원 작가 생가 복원과 문학 산책길 정비, 북카페 조성, 천관문학관 내 노벨문학 전시 공간 마련, 이청준 문학관 건립, 은하수로드내 문학거리 조성 등 대대적인 문학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앞서 장흥군은 한승원 생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생가 복원사업에 돌입했다. 지난해부터 회진면 신상리에 위치한 한승원 생가 소유주와 협의를 추진한 결과 최근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올해 생가를 옛 모습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흥군이 노벨문학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문학 탐방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장흥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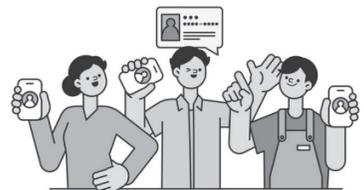
승원, 한강 부녀의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문학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한승원 생가 복원과 함께 이청준 생가 및 한승원 문학 산책로 등과의 연계로 문학 기행 관광코스도 조성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문학관광기행특구

및 노벨문학도시 장흥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가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장흥이 대한민국 대표 문학 기행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 고흥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내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고흥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17세 이상 군민이 희망하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만 무료이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휴대전화 교체 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발급 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한 발급과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발급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QR코드 발급은 실물(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경우 읍면사무소를 다시 방문해야 한다.

IC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에 IC가 추가된 주민등록증으로,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는다. 본인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받는 방식이다. 발급 비용은 1만원이며,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 읍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고흥=심정우 기자



보성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울어면 복숭아 과원에서 잔가지를 파쇄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보성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보성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감소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4월까지의 겨울철 과수 전정 작업 기간과 11월부터 12월까지 밭작물 재배 종료 시점으로, 계절별 특성을 반영했다.

팀별 3인, 총 2팀으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기존 소각 처리 방식 대

신 고춧대, 깻대, 과수 잔가지 등을 현장에서 직접 파쇄해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은 희망하는 농업인, 마을,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 농민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고령·취약층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인이 영농부산물을 일정한 장소

에 모아두면 파쇄지원단이 협의된 날짜에 현장을 방문해 파쇄 작업을 무상으로 수행한다.

지난해 124농가, 55ha에 이르는 경작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된 만큼, 올해는 전년보다 1개월가량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김숙희 소장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일손 부족 해결과 산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중수 기자

## 광양시, 하수도 사용료 3년간 단계적 인상

원가 인상·시설 투자비 증가 대응 가정용 총 140원·일반용 150원 ↑

광양시는 하수처리 원가 상승과 시설 확충 등 시설투자비 증가에 대응하고,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별로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하수도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처리 원가보다 낮은 사용료로 적자

가 누적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라왔다.

앞서 광양시는 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유예하고 2022년 이후 동결했으나, 노후 하수시설 공사 등 하수도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료 인상을 결정하고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 하수

도 사용료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사용량 20㎡ 기준)는 현재 690원에서 2025년 740원, 2026년 790원, 2027년 83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3년 동안 총 140원이 오르게 된다.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사용량 100㎡ 기준) 역시 현재 1000원에서 2025년 1050원, 2026년 1100원, 2027년 1150원으로 점진적으로 조정돼 3년간 총 150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6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2025년 7월 고지서에 반영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여수시,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여수시가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의 첫 시작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1차년도 국비 7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국가유산청과 전남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존형 경관 지침(가이드라인)과 중장기 세부 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여수 거문도 거문마을 일대는 1885년 영국군 거문도 점령 사건 이후 항만·군사시설 등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지난 2022년 8월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7월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다.

당시 공모사업의 규모는 약 360억원으로, 향후 5년간 학술 조사연구,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록문화유산 보수 및 복원, 역사경관 회복, 교육·전시·체험공간 조성, 운영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거문도는 해양 도시 여수의 근대 생활사를 간직한 상징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섬이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반영해 근대 문화유산 보존·활용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 고흥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접수 최대 2억5천만원 저금리 대출

고흥군이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2일 고흥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매년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한 후 해당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시책 사업이다.

올해 고흥군에 배정된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은 27동이며, 사업 대상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희망자 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다.

사업 범위는 농촌지역에서 연 면적(주택·부속건물 포함) 150㎡(45평) 이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이며, 신축의 경우 최대 2억5000만원,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 신청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 절차는 주택건축 완료 후 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에서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농협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QR code and '전일보' logo with contact information: Kakao Talk: 전일보, E-Mail: jebo@jnilbo.com